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분석*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을 중심으로

김경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을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인간 행위자 중심의 서술이 아니라, 다양하고 역동적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결합의 관점에서 현상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유우성 씨 문제'나 '퍼주기 논란', '송금 수수료' 등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문제로 감춰진 송금의 '블랙박스(Black-Box)' 이면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사회에서 송금 가능성은 물론, 한·중·북 송금시스템의 형성·발전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결망에서 상호작용하며 현상들을 구성해 내고 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은 기존 북한사회에 내재된 문제들을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북한 당국은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시, 의료체계 문제와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 비사회주의적 행위 증가 등을 고려하여 바이러스 위협인식만을 강조함으로써 문제들을 덮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은 무시된 채, 정치적 의도와 민감한 문제로만 블랙박스화되어 세상에 알려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연결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송금, 행위자-연결망 이론(ANT), 북한 가족, 코로나 19 팬데믹, 송금 수수료

* 이 연구는 2021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에 주목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재구성되어가는 현상을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 이하 ANT)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ANT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기존 인간행위자 중심의 연구에 대한 비판과, 사물에도 행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¹⁾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행위가 인간-비인간 행위자 연결망을 통해 어떻게 번역되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송금연구에 대한 이해와 연결망에 대한 복합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지평을 제공하고자 한다.²⁾

이주는 송출국과 이주국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³⁾ 특히 이주민이 보내는 송금은 송출국에 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구체적으로 이주민들이 해외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을 송출국 가족에게 송금하게 되면, 그들의 가계소득은 증가한다. 이는 소비 지출 증가는 물론 교육이나 건강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기능으로의 투자로⁴⁾ 이어지고 성장의 연쇄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하여 공식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경험이 있지만, 임금 대부분은 당국의 통제하에 움직인다.⁵⁾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국내에서의

1) 아네르스 블록(Blok, Anders)·토르벤 엘고르 옌센(Jensen, Torben Elgaard),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황장진 옮김(경기: 사월의책, 2017).

2) 이희영, “아날로그의 반란과 분단의 번역자들,” 『경제와 사회』, 94호(2012).

3) 스티븐 카슬(Steven Castle)·마크 J. 밀러(M. J. Miller),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서울: 일조각, 2009), 53쪽.

4) 이이림·오근엽·왕정복, “아시아 국가의 노동 이동에 따른 본국 송금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25권 3호(2019), 32쪽.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뇌물을 고역서라도 해외노동자로 파견되기를 원하고 있다.⁶⁾ 공식적이며 통제 가능한 외화획득도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그 외에 비공식적이며 통제가 어려운 외화획득은, 가계소득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인 부분에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가족에게 송금은 북한 사회 혹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에 따르면, 국내 북한이탈주민 약 65.7%는 북한에 있는 가족 및 친척에게 송금한 경험을 갖고 있다.⁷⁾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은 20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50% 이상이 북한 가족에게 송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곧 송금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송금은 북한이라는 ‘고립된’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분단체제라는 명분하에서 ‘북한 정권’의 체제유지 비용에 도움을 주는가, 주지 않는 것인가로 단순화되어 왔다. 이러한 단순화를 ‘블랙박스(black box)’라 명명하는데, 세상에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블랙박스화되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송금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단순화되어 중요한 본질을 찾지 않고, 그저 민감한 문제로 둔갑되어 여전히 갈등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자들은 북한으로의 송금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5) 김수경 외, 『북한인권백서 2019』(서울: 통일연구원, 2019), 416~424쪽.

6) 이철수·이다혜 외, 『북한을 파견하다』(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93~94쪽.

7)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65~66쪽.

해 왔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동안 북한으로의 송금 연구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 그리고 송금 동기와 감정 등 인간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으로의 송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인간행위자 중심 환원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상호적 행위성이라는 ANT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사물의 행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현상학, 해석학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송금의 상호 행위성을 시작으로 비인간 행위자가 공식·비공식 영역을 그리고 또 다른 인간-비인간 행위자와 결합하여 어떻게 번역되어 가는지 총체적으로 분석·추적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고정된, 그리고 고립된 북한사회가 아니라 꾸준히 여러 인간-비인간과 연결망을 형성하기도, 끊어 내기도 하는 현상과 변화과정을 포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행위자-연결망 이론

1) 선행연구 검토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을 야기했으며,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탈북은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낸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 온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의 탈북자는 물론, 한국의 북한 이탈주민은 여전히 북한의 가족과 연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발간하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중 1위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27.3%)로 나타났다.⁸⁾ 또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2018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통합사회실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북 송금을 통해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⁹⁾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가족이 송금이라는 행위를 통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은, 단순히 한국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간 은행거래를 통해 돈을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다. 우선, 한국에서도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송금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고, 북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에 대해 “반역자의 검은돈을 받았다”¹⁰⁾는 등 보내는 곳에서도 받는 곳에서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 있는 가족이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그리고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탈북자의 송금과 관련한 연구는 송금시스템과 송금을 주고받는 행위자에 대한 삶 등이 주를 이룬다. 먼저 정은이(2017)는 탈북자들의 송금을 토대로 북·중 간 비공식적인 송금시스템의 구축과 발전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는 북·중 간 생성된 비공식 송금시스템이 북한 내 지역별 경제 특성에 맞춰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8)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서울: 남북하나재단, 2019), 32~33쪽.

9) 북한인권정보센터, 『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141쪽.

10) 김영석, “북한에서 “반역자의 검은 돈 받았다?” 북 송금 브로커 잇따라 체포,” 『국민일보』, 2015년 5월 1일.

면밀하게 분석했다.¹¹⁾ 다시 말해서, 북·중에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송금시스템이 북한 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다.

김화순(2017)은 한국·북한·중국의 송금 중개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였고, 심층면접을 통해 송금 중개인 각각의 삶을 분석했다.¹²⁾ 북한이탈주민, 한국·중국·북한 각각의 중개인, 그리고 북한의 수취자 등이 참여하는 초국적 송금네트워크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가족을 연결하는 중간매개체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연구는 송금이라는 행위가 경제적 행위로 단순화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각 지역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지연(2019)은 앞의 두 연구와 달리,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게 하는 송금의 과정과 그 효과에 주목하였다.¹³⁾ 특히 수행성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는 양가적인 도덕감정, 그리고 분단의 이중적 위치 등을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는 북한에서 벗어난 사람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연결되는 ‘그들’만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혼종적으로 그 내면을 살펴봐야 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이 북한 가족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누구/무엇과 접촉하여 상호작용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성되거나 사라지는지, 그리고 변화해

11) 정은이, “북·중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9권 4호(2017).

12) 김화순, “분단의 경계를 넘는 초국적 송금네트워크의 형성,” 『인문사회21』, 제8권 5호(2017).

13) 이지연,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경제와 사회』, 통권 124호(2019).

가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간 주고받는 송금의 과정을 둘러싼 인간-비인간 행위자 연결망을 추적하여 그것이 갖는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남북한 문헌 및 언론자료를 1차 자료로 사용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으로 돈을 보낸 경험과 북한에서 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조사 내용을 2차 자료로 활용했다.

2)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

ANT는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기존의 인간 중심적 역사의 설명과 달리, 미생물 자체에 대하여 현저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동등한 행위자로 간주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예컨대, ‘전기 혹은 수소 자동차의 생산과 구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시기는 언제가 적정한가’, ‘한국의 대북송금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비인간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인간-비인간을 동원한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것처럼, 비인간도 우리 인간의 행위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행위능력(agency)을 가지고 있다.¹⁴⁾ 이러한 측면에서 ANT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행위자로 보며, 둘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라고 함은 인간-비인간의 이종

14) 홍성욱,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서울: 도서출판 이음, 2010), 21~22쪽.

적 연결 혹은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따라서 모든 '사회' 혹은 '사회 현상'은 인간-비인간의 이종적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양한 상호 속성을 교환하며 잡종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인간 혹은 비인간 행위자는 단일한 행위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속의 행위자로 존재한다. 예컨대,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발명이 필요하고, 연료를 주입하는 카뷰레터를, 외형을 갖출 수 있는 자동차 바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생산되던 자동차를 헨리 포드는 대량생산으로 조립하는 방법에 성공했다. 현재의 자동차는 앞의 수많은 과정과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축된 제도나 사물, 표준, 기술, 경관 등은 하나의 평범한 상식이나 단일체로 일상세계에서 인식되는데, 이는 단순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ANT에서는 '결절(punctualization)'이라 부르며, 이처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블랙박스(Black-box)'라 명명한다. 이러한 과정은 세상을 단순한 프레임으로 보게끔 만든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이 비춰지도록 일종의 번역을 행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복잡한 네트워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 현상을 복잡한 네트워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단일한 사건이나 상식, 사물 등으로 인식하도록 '단순화'하는 번역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화하여 번역하는 블랙박스가 세상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15) 아네르스 블록·토르벤 엘고르 엔센,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20~46쪽.

우리가 복잡한 네트워크를 추적하지 않고 단순함에 의지하려는 성질과 맞닿아 있다.¹⁶⁾

ANT는 단순화된 블랙박스로 대변되는 번역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다.¹⁷⁾ 다시 말해서, 블랙박스화된 ‘현상’을 추적하여 혼종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간 그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NT의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물(돈)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전해지는 과정 동안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상호 속성 교환을 추적·기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송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인간-비인간 행위자와 결합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지, 그리고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네트워크, 전달되기 위해 무엇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서술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2005년부터 본격화되어 온 북한으로의 송금은 그동안 송금 수수료의 안착과 네트워크의 형성 발전 등을 이루어 내며 특정한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으로의 송금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으로의 송금 연결망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ANT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의 대표적인 예시인 자동차는 기계적 결합 없이 잘 굴러가 기만 하면 자동차의 내부에 대한 이해 혹은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결합이 생겨 멈추는 경우, 우리는 이 자동차의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송금도 마찬가지다. 송금을 ANT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안착되어 온 송금

16) 임석훈,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9권 2호(2013), 10~11쪽.

17) 홍성욱,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 5쪽.

행위 및 네트워크가 코로나19와 만나 네트워크 구조 혹은 방법의 변화, 더 나아가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송금을 보내는 행위가 멈추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송금의 역사, 네트워크 등을 추적해 보아야 한다. 즉, 블랙박스화된 현상은 특정한 현상,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시 원래의 네트워크로 해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순화된 블랙박스가 다시 원래의 네트워크로 펼쳐지는(unfolding) 속성을 ANT에서는 네트워크의 가역성(reversibility)라 명명하며, 펼쳐지지 않을 때의 속성을 비가역성(irreversibility)라 한다.¹⁸⁾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북한으로의 송금을 살펴본다면, 송금과 북한사회의 연관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행위자-연결망으로 본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1) '한반도'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돈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의 비인간 행위자인 돈은 사실 이미 '북한이탈주민의 돈 혹은 송금'으로 '블랙박스'화되어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자-연결망 속에서 '안정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한 그해에 북한으로 최초 송금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18) 홍성욱,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 24쪽.

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은 약 3.8%로 현저히 낮다.¹⁹⁾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최초 송금하는 금액은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보다는 대부분 정착지원금일 확률이 높다. 실제 2011년 새조위(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350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약 66%가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정착지원금의 일부를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은 한국에서 노동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돈’과는 다르며, 세계에서 한반도의 위치성과 남·북한의 정치·경제·제도적 맥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정착지원금 외 북한이탈주민이 노동을 통해서 번 돈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이미 수많은 행위자들이 연결망 속에 백그라운드로 존재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연결망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야 하는 정책적 시도, 국민들의 인식, 정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시도, 교회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결망 속에서 탄생한 ‘돈’이라는 행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감정, 북한 내 가족의 위치성(경제 상황), 한국의 언론, 정책 등과 상호작용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중 일부가 송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더 이상 합법과 불법, 정책의 문제점으로 살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 혹은 북한에 남은 가족과 연을 끊은 것이 아니라, 살기

19)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76~104쪽.

20) 조민정, “탈북자 66%, 정부 정착지원금 북에 송금,” 연합뉴스, 2011년 2월 23일,

위해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송금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있으며, 초국적 연결선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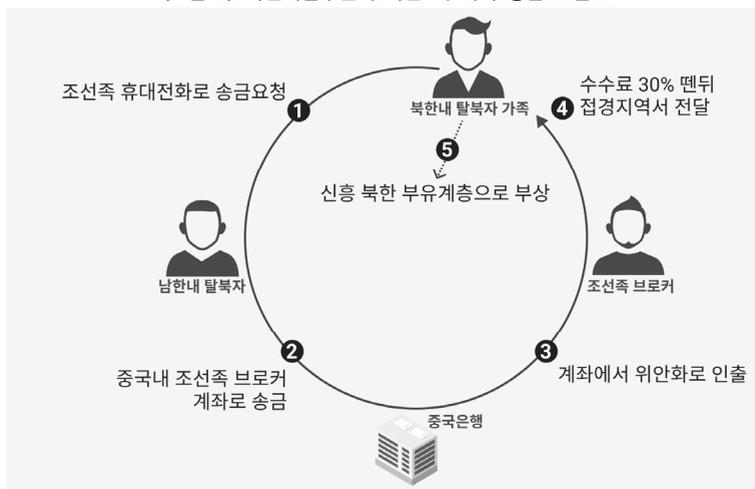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고, 북한에서도 한국에서 보내는 돈을 철저히 감시하며, 막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국내로 이주해 온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와 민간의 협력이, 북한에서는 생계수단의 하나 그리고 이산가족에 대한 연결선이라는 명목으로 송금 행위는 점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전돼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만 두고 살펴봐도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연결망을 포착할 수 있다. 즉,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고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거시적으로는 국가 간 상호작용을, 미시적으로는 인간과 정책, 불법, 여론, 인식 등이 서로 맞물려 연결망으로 만들어져 있는 셈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시스템 형성과 변화: 연결망의 상쇄와 안정성 확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일차원적으로 돈을 송금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북한으로의 송금은 불법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반역자의 검은 돈”으로 해석하고 있기에 여러 경로를 거쳐 송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송금은 단순히 계좌이체가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경로를 움직이는 과정 속에 전달된다.

송금하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송금 경험은 2013년부터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 가족 송금 흐름도



자료: 양진영·이성규, “북한 A씨가 국경 부근 산에 오르는 까닭은... 탈북자에 “돈 보내달라” 북한 가족들 전화 급증,” 『국민일보』 2012년 7월 12일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구성하였음.

50% 이상을 웃돌고 있다.²¹⁾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북한이탈주민은 20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 그 경로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1990년대 대량탈북 이후, 2005년 북한이탈주민의 송금본격화는 새로운 시스템이 형성되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었던 데에는 1980년경 형성된 북·중 동포경제 네트워크(이하 북·중 밀수네트워크)에 편입됨으로써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²²⁾ 즉, 한국에서 북한으로 송금을 보내려는 수요와

21) 북한인권정보센터, 『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142쪽.

22) 정은이,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시대 재구조 선인과 중국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2호(2012),

기존 북·중 밀수네트워크와의 결합이 새로운 한·중·북 송금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경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송금 중개인 A를 찾아가서 송금액과 송금을 받는 가족에 대한 지역정보를 의뢰한다. 그러면, A는 중국에 있는 송금 중개인 B의 계좌를 알려주고, 의뢰인은 그 계좌에 입금한다. 그리고 A는 북한에 있는 송금 중개인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아 돈을 전달해 달라고 의뢰한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연결을 시켜주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은 통신 연결이 가능한 접경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접경지역에 서로 신분을 확인 후, 송금수취인에게 돈이 전달된다. 북한 송금 중개인 C는 직접 북한 주민의 지역을 찾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소위 ‘심부름꾼’을 고용하여 북한 주민을 접경지역으로 데려온다. 여기서 중국에 있는 중개인과 북한에 있는 중개인 간 정산은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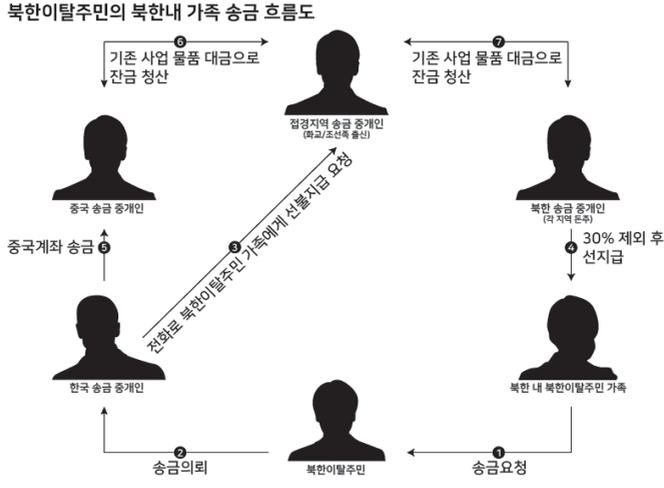
정리하자면, 기존의 송금이라는 비인간 행위자의 물질성이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적인 맥락과, 그리고 북·중 밀수네트워크와 결합하여 특수한 현상으로 번역(Translation)되어 나온 결과물이 한·중·북 송금시스템의 형성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 시장화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발전, 전국적 이관시스템 형성²⁴⁾과 또 맞물려 송금시스템의 발전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 속에서 연결망의 인

135~144쪽; 북한이탈주민 1의 인터뷰 자료(2021.5.3.).

23) 김화순, “분단의 경계를 넘는 초국적 송금네트워크의 형성,” 296~297쪽.

24) 정은이,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134~138쪽.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 가족 송금 흐름도



자료: 북한이탈주민 1의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구성하였다.

간-비인간 행위자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

2010년을 전후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최근 더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1과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1에 따르면, 기존에 북한에서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접경지역까지 직접 이동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각 지역마다 소위 ‘이관집’이라고 불리는 장소 혹은 사람이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가서 수취할 수 있다고 한다.²⁵⁾ 북한이탈주민 1의 구체적 설명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북한 내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북

25) 북한이탈주민 1의 인터뷰 자료(202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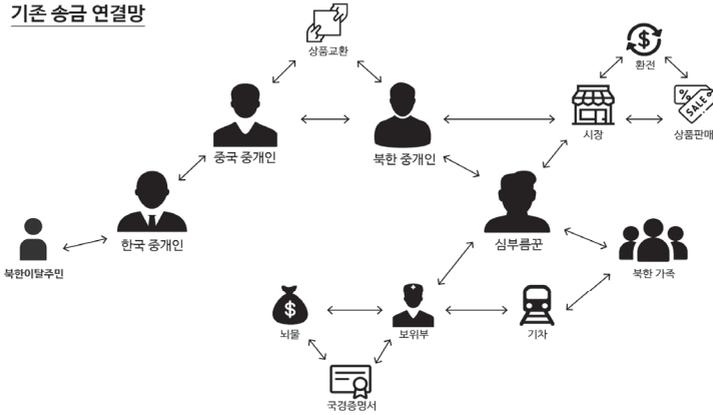
한이탈주민에게 송금을 요청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있는 송금 중개인을 찾아가 송금을 의뢰한다. 한국 송금 중개인은 전화로 접경지역에 있는 송금 중개인에게 전화하여 북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게 선불지급을 요청한다. 그러면, 접경지역에 있는 송금 중개인은 지역 대방, 즉 이관집에 전화하여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면, 약 3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북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 돈을 수취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목상으론 돈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되지만, 사실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은 돈이 북한으로 도착하는 것과 무관하게 수령한다. 그리고 중개인 간 정산은 기존 사업의 물품대금이나 장부를 통해 처리된다.

ANT 관점에서 송금시스템의 변화·발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유입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차단하기 위해 ‘광명망’인 내부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은 한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오는 돈을 받거나 한국의 북한이탈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경으로 직접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 즉 연결망에는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가 존재한다. 예컨대, 접경지역으로 이동하며 필요한 이동수단, 이동을 위한 국경증명서 발급, 이 과정에서의 뇌물, 더 나아가 심부름꾼의 역할 등이 있었다. <그림 3>을 참조하면,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북한 가족에게 도달하는 동안 접촉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시장의 확대와 휴대전화/ICT, 이관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장부청산 결제시스템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송금시스템의 ‘편리함’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²⁶⁾ 물론 이 과정 속에는 또 다른 당국의 정책실패도 포함된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

〈그림 3〉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연결망 속 행위자

기존 송금 연결망



자료: 북한이탈주민 2, 3의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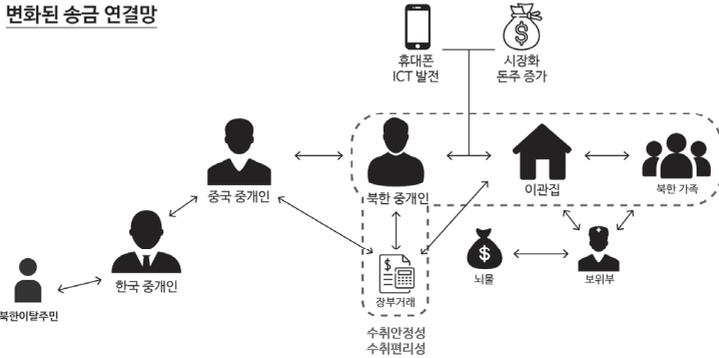
이후, 2003년에는 종합시장 설치, 2009년 화폐개혁 등 북한 당국이 시장화 확산 현상을 계획 경제 안에서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²⁷⁾ 당국의 정책에도 시장화 확산 현상은 통제가 어려웠고, 더욱 확대되는 과정에 송금 연결망도 기존보다 단순화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형성되었던 연결망 속 다층의 인간행위자 역할이 비인간 행위자 역할 증대로 연결망 속 행위자들의 상쇄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북한 내부의 송금 구조는 ‘편리함’과 ‘안정성’

26) 기존의 지역 간 돈주들 거래에서는 물건과 돈이 직접 오고갔지만, 장부청산시스템의 생성으로 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한국으로부터 북한에 도착한 돈이 직접 지역을 이동하여 가족에게 도달했다면, 이제는 장부청산결제 시스템에 편입하여 돈이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송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7) 이석,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대외정책연구원 엮음,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전망』(세종: 대외정책연구원, 2012), 34~36쪽.

(그림 4) 변화된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연결망 속 행위자



자료: 북한이탈주민 2, 3의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구성하였다.

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송금과 북한 주민의 삶 변화

ANT에 따르면, 송금과 같은 비인간행위자는 인간행위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²⁸⁾ 이러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북한사회의 제도와, 가족의 사회적 위치, 환경 등과 결합하여 북한 주민의 삶 변화로 나타나는 점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받은 돈은 북한 내 가족의 수령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준다.

북한 주민은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을 받기 위해 접경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사회 특성상, 이동상의 자유가 제한적이고, 국

28) 홍성욱,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 137~138쪽.

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경증명서(여행증)를 발급받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1에 따르면, 접경지역으로 가기 위해 국경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위부에게 먼저 뇌물을 고여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땐, 어려서 나한테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가족 중 한 명이 탈북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보위부에서 찾아왔다.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식으로 하지는 않고,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 예를 들면, “보위부 건물 새로 공사하는 데 필요한 게 너무 많다. 그러니 좀 도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럼 돈을 주기도 하고 뭐 필요한 물건 진짜 구입해 주기도 한다. 근데 내가 어려서 직접 보위부한테 돈을 준 적은 없었고, 우리 가족들은 줬다. 달러로 100달러를 주기도 하고, 담배를 주기도 한다. 보위지도원이랑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여행증을 발급받으려면 그 사람 사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다.²⁹⁾

즉, 북한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송금을 수취하는 북한 가족이 보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로 인해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만, 접경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은 북한 주민의 신분 변화로 번역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에서 벗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비교적 신분의 안정성이 높다. 반면, 북한에 남아 있는 북

29) 북한이탈주민 1의 인터뷰 자료(2021.5.3.).

한이탈주민의 가족은 ‘탈북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신분이 불안정하다.³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으로의 송금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분을 조금이나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번역된다. 이지연(2019)은 북한으로 간 돈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북한으로 간 돈은 북한 주민에게 경제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배신자’라는 과거 행위에서 기인한 정치적인 낙인을 상쇄하고 불명예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불명예를 일상 속에서 전복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된다.³¹⁾ 북한이탈주민 2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언니가 화교 통해서 돈을 보내줬었는데, 화교는 함흥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에 살고 있었다. 내가 전화받고 화교네 집으로 돈을 받으러 갔는데, 보위부가 이 전화를 도청해서 그 주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돈을 받아 나오는데, 보위부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갔다. 보위부에서는 “돈 받은 거 아니까 내놓아라”라고 했고 나는 돈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다.³²⁾

북한이탈주민 2에 따르면, 본인의 가족이 탈북한 사실과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위부가 이미 알고 있었고, 도청을 통해 현장을 포착하여 뇌물을 받아가고 풀어 줬다고 설명한다. 이지연(2019) 연구에서도, 엄마가 탈북하고부터 보위부가 툭 하면 와서 엄마를 찾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돈을 주면 다시 조용해

30) 이성희, “탈북자 가족으로 북에 산다는 것은,” 『매경프리미엄』, 2020년 9월 11일.

31) 이지연,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237쪽.

32) 북한이탈주민 2의 인터뷰 자료(2021.5.6.).

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 찾아와서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 주는 돈의 일부를 보위부에 주고 별다른 처벌 없이 일상을 유지했다고 한다.³³⁾

신분적 안정으로 번역되는 부분 외에 오히려 송금을 받기 시작하고부터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된 경우도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 1은 송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금액의 일부를 숨기거나, 속여 다르게 배분한 적이 있어 싸운 경험에 대해 토로한다.³⁴⁾ 송금받은 돈이 북한사회 내 탈북자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불화나, 장사의 밑천으로 사용하다 처벌을 당하는 경우 등 송금의 영향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금받은 돈을 통해 학교생활에서의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도 포착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는 무상교육이 기본원리이지만,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학교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많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 힘들었던 북한이탈주민 2는 송금 받은 돈으로 비교적 여유롭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소위 ‘모내기 전투’와 같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경우에 돈을 내고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³⁵⁾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금받은 돈을 통해 ‘노력동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노력동원’은 인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애국적 열의에 의하여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³⁶⁾ 즉, 노력동원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은 조직생활에서의 사상검열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시·

33) 이지연,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238쪽.

34) 북한이탈주민 1의 인터뷰 자료(2021.5.3.).

35) 북한이탈주민 2의 인터뷰 자료(2021.5.6.).

36) 김창희, “북한 로동당 제7차 대회 경제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21집 4호(2016), 126쪽.

공간 보유를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은 앞에서 말한 송금시스템을 거쳐 북한 가족에게 도착한다. 송금받은 돈은 북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와 결합하여 신분과 지위의 변화, 교육환경 변화를 통한 개인의 시·공간 발생 등 인간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4) 송금, 팬데믹, 북한사회 통제/제도

북한은 2020년 1월 22일, 중국 우한시로부터 시작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보도를 시작으로, 1월 26일 국경과 항만, 비행장들에 위생검역사업 강화를 지시했다. 이어서 1월 30일에는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했다.³⁷⁾ 이러한 대응은 북한의 기존 봉쇄정책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었다.³⁸⁾ 북한으로의 송금은 일반적인 다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영역에서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와 결합하여 각국 제도 혹은 통제 기능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통제기능은 송금 수수료의 비율을 결정해 왔다.³⁹⁾ 즉, 북한으로의 송금 연결망에는 굵직한 비인간 행위자로 유엔 제재, 남·북 분단, 북한사회의 처벌규정, 밀수 등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결망에 포함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코

37)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 『로동신문』, 2020년 1월 26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비상대책 강구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 『로동신문』, 2020년 1월 30일.

38) 오승준·하승희,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제24권 2호(2020), 6~8쪽.

39) 노정민, “RFA 스페셜 대북송금 수수료 폭등,” 자유아시아방송, 2021년 5월 18일.

로나19 팬데믹'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행위자가 되었다. 기존에 형성된 연결망에서 안정화되었던 송금 수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장으로 30%에서 50%로 증가했음을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⁴⁰⁾ 북한은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봉쇄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기존 송금시스템에서 선(先)지급해 주던 예치금이 고갈되면서 송금 수수료가 올라갔다고 설명하는 것은 일차원적이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예치금 고갈 현상도 수수료 폭등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약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높은 수수료로 일부 송금되고 있는 행위들은 예치금 고갈 현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나아가려는 방향과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새로운 시대 어젠다로 내세웠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경제건설과 사회문화 두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사회문화에서는 '사회주의 미풍양속⁴¹⁾과 준법기풍⁴²⁾'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문화적 통제와 검열의 도구로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즉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비사회주의적 영향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⁴³⁾

40) 김영권, “북한 국경봉쇄 이후 탈북민 대북송금 거의 막혀,” VOA, 2021년 6월 17일.

41) 정치적으로 최고지도자를 받드는 풍조, 혁명선배를 존중하고, 군과 인민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회를 일컫는다.

42) 사회통제의 출발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상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과 법의 실효성 증진, 법을 중심으로 한 체제 운영을 통해 북한사회의 부패, 관료주의, 뇌물 등의 부정적 현상을 바로잡아 사회 기강을 잡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통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따라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유입되거나 사회주의 제도에 맞지 않은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 모든 사람이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⁴⁴⁾ “사상이 굳건하고 감정정서가 풍부한 인민에게는 퇴폐적인 부르조아 생활양식이 절대로 발붙일 수 없다.”⁴⁵⁾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법을 통해 집행하려는, 즉 정상국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시장화 이후, 북한에서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를 통해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려는 자가 증가하고 있고 북한은 정상국가의 입장에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는 「비상방역법」을 제정했고, 「전염병예방법」을 수정·보충했다.⁴⁶⁾ 「비상방역법」 20-21조에 따르면,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중앙비상방역지휘부⁴⁷⁾를 조직해야 하고, 전염병이 자국으로 들어올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을 선포하고 비상방역등급을 정해야 한다. 또한 중앙인민보건지도기관은

일인문학』, 제84호(2020).

44) “김정은 신년사,” 『노동신문』, 2018년 1월 1일.

45)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노동신문』, 2018년 2월 24일.

46) 국가정보원, 『2020북한법령집』 하(서울: 국가정보원, 2020), 674쪽;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조선중앙통신, 2020년 4월 3일.

47) 비상방역지휘부는 내각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인민무력성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앙급의 국가보위성(보위성), 검찰, 사회안전성(안전성), 군수, 특수단위와 국가계획기관으로 구성한다. 정광성, “북한의 ‘비상방역법’ 코로나19로부터 평양을 사수하라,” 『월간조선』, 2021년 5월 10일.

전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서를 제작하여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⁴⁸⁾ 「비상방역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이동 통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의 기존 봉쇄정책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행위자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방향과 상호 작용하며 기존에 형성·변화된 송금 연결망의 상쇄 더 나아가 확보된 안정성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행위자의 등장으로 인한 송금 연결망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행위자의 세분화이다. 앞서 설명한 ANT는 비인간 행위자로 인해 인간행위자를 변화시키는 속성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송금 중개인은 강한 권력을 가진자(강한 권력기관과 맞닿아 있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로 구분했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북한 내 송금 중개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북한 이탈주민 3에 따르면, 그 당시 국경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개인으로 도전하려 했었고, 권력의 크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다.⁴⁹⁾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북한 당국은 국경봉쇄와 법적 단속을 강화시키면서 외부로부터 유입에 굉장한 제한을 두었고, 권력을 가진 자만이 그나마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요즘은 그나마 좀 하는 사람들이 중간 브로커를 하는 거예요. 웬만큼

48) “비상방역법의 중요내용에 대하여(2),” 『민주조선』, 2020년 10월 20일.

49) 북한이탈주민 3의 인터뷰 자료(2021.8.9.).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45~50%씩 가져가요. …… 오히려 중간 수수료를 적게 떼는 브로커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고, 수수료가 비쌀수록 믿을 만한 선이 있기 때문에 돈이 확실하게 전달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⁵⁰⁾

두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송금 연결망 변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2020년 1월 말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고자 국경과 항만, 비행장 등을 봉쇄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을 2020년 1년 동안만 약 2,100건 이상을 보도했다.⁵¹⁾ 북한의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전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 월등히 많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은 이전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2월 26일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악성비루스와 2020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다.⁵²⁾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행위자의 등장은 기존 북한사회에 내재된 문제들을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북한 당국은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시, 원활한 작동이 어려운 의료체계 문제와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 비사회주의적 행위 증가 등을 고려하여 바이러스 위협인식만을 강조함으로써 문제들을 덮으려 하고 있다. 즉, 코로나19의 등장으로 기존 북한사회의 문제점⁵³⁾과 북한 당국의 의도라는 행위자들이 연결

50) 자유아시아방송, 2021년 5월 18일.

51) 『로동신문』에서 코로나19 내용을 담은 보도는 2020년 1월 22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2,139건이다.

52) “악성비루스와 2020년,” 조선중앙TV, 2020년 12월 26일.

망 속에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송금 연결망에서도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북한 당국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 단속 강화,⁵⁴⁾ 특히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송금 연결망에서 기존 행위자들을 단속차별하는 행위능력을 생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은 북한사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일수록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금 및 소득 감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에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생계 위기 의심자만 약 829명에 이른다. 즉,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은 물론 생계유지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로가 통제됨에 따라 탈북인원이 줄어들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감소 추세가 강화되는 등 한국사회에서 송금의 주체인 북한이탈주민의 계층 및 상황 변화와도 연결하여 살펴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연결망에는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밀수 혹은 시장화와 같은 더 큰 연결망 속에 편재돼 비교적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송금 행위가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은 북한사회 전반의 변화와 다양한 행위자들을 생산했고, 사회변동 요소를 억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송금하는 행위에서 송금 수수료의 폭등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으로의 송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 현

53) 기존 북한사회의 문제점들은 코로나19와 상호작용하며 북한 당국의 행위 능력을 생산해 냈다는 점에서 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

54) 이명철, “북, 추석 맞아 탈북자 가족 송금 감시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21년 9월 21일.

재 북한사회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송금을 둘러싸고 있고, 어떤 요인들이 연결망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송금 수수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왜 송금 수수료로만 번역되어 나오는지 가 중요하다. 그 내면에는 당국의 정책방향성과 코로나19 팬데믹, 북한 의료체계의 문제점 등 북한사회가 밝히기 싫은 모멘텀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송금의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과 돈이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북한 사회 내에서 송금으로 인한 변화 등을 ANT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추적·분석했다. 송금의 물질성은 ‘돈을 부쳐 보냄’ 즉, 돈을 보내는 행위다. 이러한 물질성은 북한이탈주민과, 남·북 관계의 특수적 상황,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남한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들’로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을 ANT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돈이 형성·전달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의 관점에서 추적·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인간 행위자 중심의 현상 설명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송금 연결망의 생성·변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은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함을 밝혀냈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연구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

송금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돈, 즉 북한이탈주민의 돈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로 블랙박스화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돈’이라는 행위자는 정착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채용과 관련된 정책적 시도, 한국 국민들의 인식, 정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시도와 같은 행위자들의 연결망 속에서 하나의 행위자로 결절되어 나온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연결망을 보유한 ‘돈’이라는 행위자는 인간의 감정과 북한의 상황 등이 결합하여 북한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 행위로 발전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돈’은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행위자로 결절된 상태이다.

셋째, ‘하나의 행위자’로 번역된 북한이탈주민의 돈은 북한으로 송금되기 위해 기존의 북·중 밀수 동포네트워크를 끌어다 사용한다. 이로써 한·중·북 송금시스템이 형성된다. 이 시스템에는 국가와 그 속의 중개인, 잔금 처리방식의 변화, 휴대전화 등과 같은 혹은 다른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상호작용과 결합이 지속적으로 연결망을 만들어 내고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연결망은 또 북한의 정치·경제적인 변화와 결합하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엇이 생성되고 사라지는지에 대한 추적이 중요하다. 기존에 생성된 방식은 북한 주민이 직접 접경지역으로 이동해야 수취 및 연락이 가능했지만, 휴대전화/ICT와 이관시스템의 발전, 시장화로 인한 대방(돈주) 등이 나타나면서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송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연결망에서 북한 주민을 데려오는 ‘심부름꾼’과 이동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비인간 행위자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으로 송금 수취에 있어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얻을 수 있는 연결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넷째, 송금은 북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ANT 관점에서 비인간은 인간의 행위를 바꿈으로써 그 행위능력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돈은 북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와 결합하여 신분과 지위의 변화, 교육환경 변화를 통한 개인의 시·공간 발생 등 인간 행위자의 새로운 삶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송금은 북한사회 통제/제도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결합하여 송금 수수료 변동으로 번역되어 나타난다. 코로나19가 송금 연결망 속에서 권력을 가진 행위자로서 등장했고, 단순화되어 송금 수수료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나아가려는 방향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코로나19가 송금 수수료 변동 폭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어젠다로 내세우면서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외부로부터 정보유입을 최소화하려는 기조에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기존의 봉쇄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행위자의 등장은 기존 북한사회가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이를 덮기 위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 인식을 강조했고, 그 결과가 송금 연결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송금 연결망에서 인간행위자를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세분화했고, 송금 연결망의 기존 행위자들을 단속·차별하는 행위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ANT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연결망은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북한사회의 시장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장으로 북한사회 전반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생겨났고, 사회변동 요소들을 억제하는 현상에서

송금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블랙박스화된 채, 송금 수수료 폭등과 단속 처벌강화 등으로만 보이고 있다.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송금 연결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송금을 둘러싸고 있고, 어떤 요인들이 연결망에서 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송금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송금의 주체인 인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을 총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복잡한 연결망 속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세상에 대변되고 있는 ‘단순화’된 것 이면에는 인간행위자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상호속성 교환을 통해 수많은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 단지, 우리 눈에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쉽게 떠오르는 ‘무엇’으로 ‘결절화’되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이다.

■ 접수: 11월 4일 / 수정: 12월 9일 / 채택: 12월 13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신문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2018년 2월 24일, 2020년 1월 26일, 2020년 1월 30일.

2) 기타 자료

조선중앙TV, 2020년 12월 26일.

조선중앙통신, 2020년 4월 3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국가정보원, 『2020북한법령집』 하(서울: 국가정보원, 2020).

김수경 외, 『북한인권백서 2019』(서울: 통일연구원, 2019).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서울: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인권정보센터, 『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9).

_____,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블록, 아네르스(Anders Blok)·토르벤 엘고르 엔센(Torben Elgaard Jensen),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황장진 옮김(경기: 사월의책, 2017).

이철수·이다혜 외, 『북한을 파견하다』(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카슬, 스티븐(Steven Castle)·마크 J. 밀러(M. J. Miller),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서울: 일조각, 2009).

홍성욱,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서울: 도서출판 아음, 2010).

2) 논문

- 김영운, “탈북자 송금, 자유로 연결된 생명 줄,” 『통일한국』, 제327권(2011), 54~56쪽.
- 김화순, “분단의 경계를 넘는 초국적 송금네트워크의 형성,” 『인문사회21』, 제8권 5호(2017), 283~300쪽.
- 김창희, “북한 로동당 제7차 대회 경제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21집 4호(2016), 113~133쪽.
- 김환석, “STS(과학기술학)와 사회학의 혁신: 행위자-연결망이론(ANT)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2001.6), 387~409쪽.
- 오승준·하승희,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제24권 2호(2020), 1~37쪽.
- 이석,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대외정책연구원,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전망』(세종: 대외정책연구원, 2012), 31~76쪽.
- 이이림·오근엽·왕정복, “아시아 국가의 노동 이동에 따른 본국 송금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25권 3호(2019), 31~51쪽.
- 이지연,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경제와 사회』, 통권 124호(2019), 221~254쪽.
- 이희영, “아날로그의 반란과 분단의 번역자들,” 『경제와 사회』, 제94호(2012), 39~79쪽.
- 임석훈,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9권 2호(2013), 5~32쪽.
-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통일인문학』, 84호(2020), 43~70쪽.
- 정은이, “북·중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9권 4호(2017), 123~152쪽.
- _____,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2호(2012), 127~150쪽.

3) 신문

『국민일보』, 2012년 7월 12일; 2015년 5월 1일.

『민주조선』, 2020년 10월 20일.

『매일경제』, 2020년 9월 11일.

『월간조선』, 2021년 5월 10일.

4) 기타 자료

VOA, 2021년 6월 17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자료(2021년 5월 3일, 2021년 5월 6일, 2021년 8월 9일).

연합뉴스, 2011년 2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 2021년 5월 18일; 2021년 9월 21일.

Remittanc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Actor-Network Theory

Kim, Kyoung Ryeol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remitta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Actor-Network Theory (ANT). Specifically, the present situation is reconstr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and combination between diverse and dynamic human-non-human actor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existing human-actors-centered narratives. Through this, we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black box’ of remittances hidden by political or sensitive issues. First, the possibility of remittance in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mittance system between South Korea-China-North Korea are becoming a phenomenon. Second, the emergence of the Covid-19 pandemic brought the problems inherent in North Korean society to the surfac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trying to cover up the problem by emphasizing the threat of the virus, considering the problems with the country’s medical system, the psychological turmoil of residents, and the

increase in non-socialist behavior. This complex background has been ignored, and political intentions and sensitive issues have made it a 'black box', which is known to the public and fueling conflict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roblem, we need to approach the problem from the aspect of relationships and networks.

Keywords: remitta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ctor-Network Theory (ANT), North Korean families, COVID-19 pandemic, remittance fees